

직장인들을 향한 선교에의 부르심: 개발협력과 선교 2.0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독교학문연구회 융합분과장)

우리나라는 2010년 OECD의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함으로써 공식적으로, 그리고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주는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최빈국가도 원조지원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하나의 희망을 세계의 모든 빈곤국가들에게 보여 주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세계의 많은 개발도상국가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최빈곤 국가들은 한국을 좋아한다. 이들은 일본이나 서구와 달리 한국은 자신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으므로 자신들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 하다.

많은 개도국 개발현장에서 한국의 많은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일본이나 서구 선진국 파견자들과 달리 주말에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마을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들에 현지 주민들도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고 칭찬하는 소리들을 듣게 된다. 또 해외에 자원봉사나 전문 자문위원으로 나가셨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단순히 좋은 일을 하려고 잠시 다녀오는 마음으로 나갔다가 그들의 사정과 마음을 보고는 성심을 다해 돕고 싶었다는 고백들을 자주 듣게 된다. 어쩌면 하나님은 한국인들의 마음에 이런 심령을 부어 주셨는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보인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저개발국가, 빈곤국가들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계신다. 글로벌 교류·협력이 많아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해외로, 특별히 저개발국가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DAC에 가입하면서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자금을 5년 이내에 두 배로 확대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ODA 예산은 매년 1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ODA 자금을 수행하기 위한 개발 NGO들이나 대학, 연구원, 전문가들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교류·협력도 증가하는 것이다.

공적인 영역에서의 교류·협력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협력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낙후지역이자 분쟁지역으로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여 경제적인 기반조차 놓이지 않았던 아프리카가 지난 10년 동안 매년 10% 가까이 고도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최빈국에서도 이동통신 보급률은 70-80%를 넘어가고 있다. 아프리카 시골 마을의 아저씨가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모습도 어디서나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아프리카 내전은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고 과거에 비해 정치적으로도 놀라울 정도로 안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과 경제 성장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도 확대되고 있고 한국 청년들의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된다.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모잠비크의 호텔 로비에서 한국 사람들을 여럿 만난 것을 보면 이러한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 아시아 지역인 캄보디아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통적인 우호·협력국가에 한국 사람들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 최근엔 미얀마와 라오스 등 폐쇄적인 국가들이 개방화 물결을 타면서 한국의 개발협력 NGO 단체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글로벌화는 한국의 해외 진출뿐 아니라 국내로 유입되는 이주자들의 규모 또한 크게 성장시켰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2013년도 출국자 수는 승무원을 제외하고 13,834,472명이다. 반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외국인 규모는 2013년도 한 해만 10,563,832명이었다(2013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통계연보). 이것은 2008년 대비 57.6%나 증가한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37,255명이 입국하였고, 나이지리아에서만 3,862명의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이지리아의 치안이 너무나 불안하다는 외교 공관원의 말에 호텔과 회의 장소를 대어차량으로 이동하며 한번도 외부로 나가지 못했고 그래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라고는 관료들과 호텔 종업원들밖에 보지 못했었는데, 3천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사람이 한국을 방문하였다니 매우 놀라운 일이다.

몽골 선교를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선교와 교회개척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한 몽골 사람이 2013년에만 65,446명이라고 한다. 기독교 박해로 복음 전파가 힘들어진 우즈베키스탄에서도 44,326명이 한

국을 방문하였다. 뿌리 깊은 불교국가로 최근에는 개방화되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있는 미얀마에서도 22,317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중동 국가, 이슬람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만 10,311명이 방문하였고, 요르단 2,836명, 이라크 2,798명, 쿠웨이트 1,567명, 아프가니스탄 1,061명 등 수많은 중동국가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했다. 필자가 강의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대학원 과정에도 KOICA의 석사연수 프로그램을 수행중인 이라크의 쿠르드족 청년이 있었는데, 과연 평생 쿠르드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

KOICA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서 정책연수를 받고 있는 수많은 개발도상국가 고위 공무원들이 있다. 차관급, 국장급에서 과장급과 실무진까지, 어쩌면 개발도상국가의 NGO 단체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해당 국가의 부처 공무원들 때문에 많은 애를 먹었을텐데, 이곳에서 이들은 연수를 받는 연수생 신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참여했던 KOICA 연수 사업에서도 몇 번 가보려고 시도했지만 기회가 없었던 동티모르의 국토교통부 국장과 실무담당자가 연수에 참여하여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그렇다. 이들은 대부분 복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들 고급 공무원들이나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유학생들, 그리고 아프리카나 몽골, 미얀마, 라오스, 중동 지방에서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정말 평생에 만날 기회가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볼 때는 하나님은 이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하게 하시는 큰일을 행하고 계신다.

계량경제학을 전공한 필자는 현상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과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곳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을 많은 나라들에 더 많이 나가게 하시는지 궁금했다. 국가별 그리스도인의 인구 비율과 국가별 공적개발원조자금의 비율, 국가별 인구 대비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emigration)의 비율과 국내로 유입되는 사람(immigration)의 비율 등을 놓고 비교해보다가 매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인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영미식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 같은 개신교 인구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1) 해외에 원조하는 ODA 자금, 2)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의 비율, 3)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의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 곁에 저개발국가의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계신 셈이다.



글로벌화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정보통신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확대에 따라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것은 저개발국가로 나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의 이웃으로 들어오는 저개발국가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하심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앞에 놓여있는 선교의 과업은 엄청나다. 이 선교와 증인된 삶의 과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지의 교회개혁과 목회를 위해 나아가는 목회자 선교사들뿐 아니라 전문인으로 현지에 대학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세우고, 병원, 적정기술센터와 연구소에서 일하며 현지 사업체에서 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한국에서 일하지만 개도국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는 직업인들의 현신이 더욱 중요할지 모르겠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만나는 교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동료 직업인들, 국내 교육훈련 연수를 받으러 온 외국 고위 관료들을 만나는 전문가들, 무역과 현지사업을 위해 개도국의 사업체 담당자를 만나는 한국의 비즈니스맨들도 모두 예수님의 증인된 삶에 동참해야 한다. 2013년 11월에 개최한 개발협력 네트워크 포럼과 매월 개최하고 있는 개발협력 네트워크 세미나, 월례 예배, 아카데미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영역별 전문가들과 직장인들이 목회자 선교사, 전문인 선교사, 개발협력 NGO 단체들과 더불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통한 협력과 네트워크를 지향하기 위해 예배와 기도, 논의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하나님의 선교전략은 과거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 같다. 그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둔 주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개개인을 부르셨지만 동시에 교회의 한 일원으로도 부르셨다. 우리 한 사람으로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어찌해볼 도리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서 머리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증인이 된다면 승리가 약속된 게 아닐까? 예수님의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혹은 목회자 선교사로, 혹은 전문인 선교사로, 혹은 개발협력 NGO 전문가로 현장에 나가 있지만, 직장에서 일하면서 저개발국가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적인 프로젝트와 민간 사업들에 관여하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있다. 우리가 스스로 주관자가 될 것이 아니라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종으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서 서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고 우리의 것을 내어줄 수 있으며, 오히려 그리스도 생명의 사랑을 저개발국가의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렇다. 글로벌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선교의 기회이다.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의 손길과 그 뜻을 좇아 살아간다면 이 글로벌화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전달하는 사랑의 도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주관하는 자가 되어 섬기는 대신 섬김을 받으려한다면 글로벌화는 오히려 죄악이 관영하여 퍼지는 어둠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길가의 강도 만난 사람들, 그들을 지나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마음을 지닌 주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본다.

개발협력네트워크 문의 co_develop@naver.com / 02-533-6414



이우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개발협력네트워크를 통해 선교와 개발협력의 네트워크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YWAM 개발협력네트워크, 국제이주자선교포럼을 섬기고 있으며, 본 동역회 기독교학문연구회 융합분과장으로 매월 관련 모임을 주최하고 있다.